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안전교육의 효과

윤선화*, 정윤경**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정보와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 양천구 38곳의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963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방법은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 실시 전후 어머니의 안전지식, 안전실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어머니의 안전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어머니의 안전실천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안전용품 사용과 관련된 안전실천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주제어: 가정안전사고, 부모안전교육, 안전지식, 안전실천

I. 서론

2010년 한 해 동안 1-14세 이하 어린이 총 사망자수는 1,772명이며, 이중 29%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통계청이 발표한 ‘사고로 인한 어린이사망률 OECD국가비교’에서 2007년 사고로 사망한 우리나라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561명으로 어린이 총사망자의 39.1%를 차지하여(통계청, 2009.05.06) 사고는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또한 2008년 9,421건, 2009년 11,427건, 2010년 15,006건으로 3년 사이 1.5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만1세 미만이 997건(7.7%), 만1세~만3세가 56,402건(49.3%), 만4세~만6세가 2,769건(21.3%)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2011). 이원경·박건희·은상준·김윤·이진석·송경준·문상준·김용익(2009: 288-296)의 연구에서도 6세까지의 영유아들이 손상을 가장 많이 당하고 있으며 중증으로 인한 손상이 많아 안전취약 연령대로 가장 주의를 요하는 시기이다(윤선화·정윤경·이경선, 2010).

영유아기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은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기인하는데 학령 전기 영유아는 성인에

* 제1저자(교신저자), ** 공동저자.

비해 신체조절능력과 운동기능이 미발달되어 일상 생활 속에서 잘 넘어지고 부딪치고 떨어지는 등 다치기 쉽고(윤선화 외, 2010; 이기숙·장영희·정미라·윤선화, 2011; 이재연, 1996; Robertson, 1998), 호기심이 강하나 위험에 대한 주의력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박순우·허윤정·이상원·박정환, 2004: 274-281). 또한 영유아는 가벼운 충격에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와서 장애를 입기 쉬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커지는데(박순우, 2003: 52-66; 이원경 외, 2009: 288-296) 실제 1~6세 영유아의 손상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은 8,507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박혜숙·박남수·어은경, 2009).

영유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장소는 바로 가정이다(보건복지부, 2010.05.26; 장영희·윤선화·정윤경·이혜경·윤서연, 2003: 48-58). 한국소비자원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35,854건의 62.2%(8,070건)가 가정에서 발생하였으며(한국소비자원, 2011), 특히 만 1세~3세의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사고의 절반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기창·이종영·곽영호·윤선화, 2006: 18-48; 이원경 외, 2009: 288-296; 질병관리본부, 2009).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영유아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32.3%), 충돌사고(22.5%), 추락사고(21.0%), 화상사고(12.7%), 굶힘 및 배임(6.2%), 찔림(4.3%) 순으로 나타났다(윤선화·정윤경, 2007). 이원경 외(2009: 288-296)의 연구에서는 전체 연령에서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손상이 가장 많으며, 화상은 0~1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0~3세 남아의 경우에는 추락사고가 가장 많았고, 4~6세 남아는 걸려/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은 반면 여아의 경우 걸려/미끄러져 넘어짐 보다 추락으로 인한 손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2010)의 조사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만1세미만의 영아는 추락/낙상사고가 주로 발생했고, 만1세~3세 때는 사물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30.2%로 가장 높았으며 만4세~6세 유아도 역시 사물에 부딪치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희 외(2003: 48-58)의 연구에서도 넘어지는 사고(38.4%)와 부딪히는 사고(22.1%)가 다수를 차지했고, 0~2세는 넘어지는 사고, 중독사고, 부딪치는 사고가 많고, 3~5세는 넘어지는 사고, 부딪치는 사고, 떨어지는 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6세 이하의 영유아들은 가정에서 안전사고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영유아들에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듯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유아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가정 자체가 영유아들에게 생활의 장이며 동시에 탐험과 학습의 장이기 때문이다(Towner & Ward, 1998: 10-16). 또한 일반 성인들의 편의위주로 지어진 가정이라는 공간은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에게는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은 부모의 관리와 통제 하에 있는 공간이지만 부모의 위험인지도와 영유아의 발달적 특징과 안전사고와의 이해도가 낮고 가정 내 환경을 영유아가 안전한 환경으로 구성하지 못한데서 기인할 수 있다. 실제로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 2,213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점 23점 만점에 11.74점(100점 만점기준 51.1점)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이 심각할 정도로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

선화 외, 2007).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응급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영유아기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모들의 행동패턴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Halperin, Bass & Mehta, 1983: 548-552). 실제로 부모가 가정 내 손상의 위협에 조금만 주의 기울이면 영유아 안전사고의 9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으며(Hall-Long, Schell & Corrigan, 2001: 141-148)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중재자는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모임을 부모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Tower, Dowswell, & Jarvis, 2001: 249-253). 영유아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영유아기 부모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부족이나 가정 내 안전 수칙의 부재가 안전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Peterson, Gable & Saldana, 1996: 317-331; Routh, 1997: 495-498).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실에 방문한 취학 전 어린이손상환자 현황(2009)에서 81.7%가 손상발생 당시 보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고에 대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안전사고는 안전에 대한 지식과 행동 간의 관계조절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행동을 아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는 가정의 물리적인 환경을 점검하여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Mackay & Rothman, 1982: 248-252).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들은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부모의 안전지식과 안전행동, 가정환경에 주목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지식과 실천, 환경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개입을 중요하게 보았다. 즉 부모들에게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가정환경 및 실천의 변화를 도모하게 하거나 안전설비와 용품을 제공하여 행동의 변화를 조장하는 등의 중재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음을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하였다(Bablouzian, Freedman, Wolski & Fried, 1997: 14-16; Clamp & Kendrick, 1998: 1576-1579; Kendrick, Marsh, Fielding & Miller, 1999: 980-983; King, Thomas, Gatenby, Georgiou & Hua, 1999: 104-108; Liller, Craig & Crane, 1998: 218-221; Mallonee, Istre, Rosenberg, Reddish-Douglas, Jordan, Silverstein & Tunell, 1996: 27-31; Shults, Sacks, Briske, Dickey, Kinde, Mallonee & Douglas, 1998: 308-312; Thompson, Edwards & Jarvis, 1998: 138-140). 특히 부모안전교육의 효과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매우 유의미하며, 부모들의 안전지식이 안전한 태도를 함양하게 하여 안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강성희, 2004; 김혜금, 2007: 33-50). 이와 더불어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시설과 설비, 물품의 제공으로 안전한 환경 구성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Towner, *et. al.*, 2001: 249-253). 실제로 가정안전용품을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에 무료로 제공하고 부모들에게 안전지식을 기반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Purtscher & Mayr, 1998: 236-237). 즉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안전지식을 기반으로 한 안전정보 제공과 더불어 안전용품을 함께 제공할 때 더욱 효과적이며,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영유아 안전사고의 효과적인 감소를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가정안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부모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지식과 실천, 태도에 변화를 보여주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강성희, 2004; 김혜금, 2007)들이 있다. 그러나 안전지식과 더불어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지식과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 실시 전·후 어머니의 안전지식에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 실시 전·후 어머니의 안전실천에 차이가 있는가?

II.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은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제공을 통해 영유아를 둔 부모의 안전지식 및 실천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전문가협의회에는 본 연구자를 비롯해 유아교육 및 아동학 전공교수 2인, 어린이집 원장 2인, 안전전문가 2인, 예방의학전문가 1인 총 7인이 포함되었다. 전문가협의회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3차에 걸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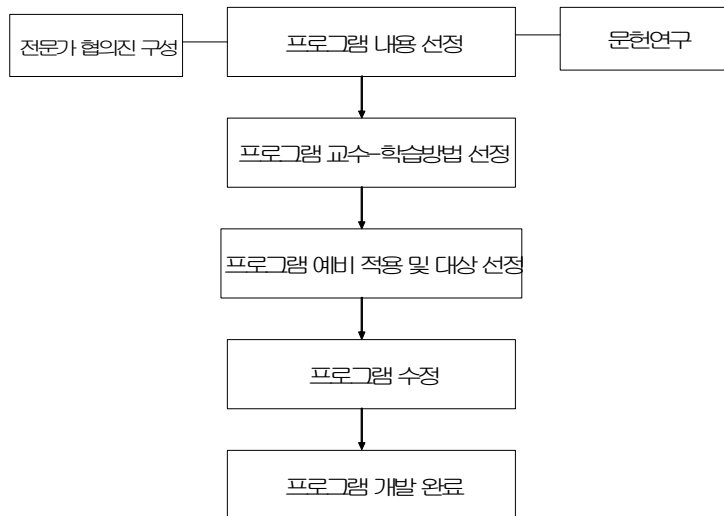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사고예방에 관한 선행연구(강성희, 2004; 권기창 외, 2007; 임지선, 2002; 윤선화 외, 2007; 장영희 외, 2003; King, *et. al.*, 2001)와 통계청 사망통계연보(2001~2008), 한국소비자원의 가정 내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2004; 2005; 2006)를 통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성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망사고, 병원치료를 요하는 사고, 가정 내 안전사고 중 5순위를 차지하는 사고유형, 즉 추락, 충돌, 질식, 화재 및 화상, 놀이사고를 프로그램에 예방적 차원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포함될 내용으로 이에 대한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중독, 추락, 기타)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사고유형 외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 가정 내 장소별 안전사고 유형을 포함시켰다.

프로그램 진행회기에 있어서는 장시간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렵다는 부모의 요구도와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3시간 1회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되 여러 곳의 어린이집 부모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프로그램 교수-학습법에 있어서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참여형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가정안전 사례에 대한 의견교환, 응급처치 실습, 안전용품 사용 실습 등 부모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그림 1>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

2.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본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은 영유아의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의 ‘가정안전에 대한 지식 획득’, ‘안전한 가정환경 구성 및 안전생활의 실천화’, ‘응급상황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내 안전사고 위험요인과 예방법을 통해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

둘째, 가정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 안전한 가정환경을 구성한다. 그리고 위험상황에서 적극

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한다.

셋째,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이해한다.

3. 프로그램 운영

1) 참가대상

본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은 어린이집에 만1세부터 만6세 자녀를 보내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어머니 963명이다. 한 집단의 참가 어머니들은 25명으로 총 38개 집단으로 운영하며 총 프로그램의 주 강사는 아동학을 전공하고 유아교육기관 및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온 연구자들이 강사가 되어 수행하였다. 2차시 응급처치 교육은 간호학을 전공하고 병원 응급실과 어린이집에서 양호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강의와 실습을 담당하였다.

2) 실시기간

본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은 중재집단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 서울시 양천구 어린이집 38개 기관에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2차시 3시간으로 실시되었고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요일에 어린이집 강당이나 교실에서 중재대상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3)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본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은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응급처치 2차시로 3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표 1>참조). 각 차시는 도입(15분), 전개(60분), 마무리(15분)로 이루어졌다.

1차시 연령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 및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도입부분에서는 가정 내 안전사고 동영상을 통해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실태, 안전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실시하였다. 전개부분에서는 신문기사나 뉴스, 한국소비자원, (사)한국생활안전연합에 접수된 연령별, 장소별 안전사고 유형 및 사고사례를 제시한 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제시하는 안전지식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강의 후 어머니들이 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PPT에 제시된 장소별 위험요소를 찾고 토론을 하거나 가정안전꾸러미에 제시되어 있는 안전용품인 모서리보호덮개, 손끼임방지대, 가스렌지 잠금장치, 멀티 잠금밴드, 전기안전커버, 미끄럼방지스티커의 사용법을 실습하여 안전용품 사용 및 위험요소 인식을 통한 안전한 가정환경을 구성하도록 유도하였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7가지 안전용품과 부모에게 가정 내 안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수첩이 담긴 가정안전꾸러미를 제

공하였다. 가정안전꾸러미에 포함된 7가지 안전용품은 가정에서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빈번하게 발생되고 안전사고 유형인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미끄럼방지스티커), 충돌사고(모서리보호덮개, 손가락 보호대), 화상사고(전기안전덮개, 가스레인지잠금장치), 굽힘 및 베임(잠금장치), 찢림사고(잠금장치)를 예방하기 위한 6가지 안전용품과 추락사고와 충돌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한 냉찜질팩 1개 등 총 7가지 로 구성하였다.

2차시 응급처치법은 실습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 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처치와 심폐소생술법, 119신고요령을 익히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응급처치법은 시간관계 상 동영상 강의로 제공하였다. 영유아들에게 낙상과 충돌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냉찜질팩을 제공하고 사용법에 대한 실습을 하였다.

<표 1>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1차시 : 연령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 및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교육목표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정보를 익히고 실천할 수 있다. ·가정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 안전한 가정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자료
도입(15분)	·교육내용 안내 ·가정 내 안전사고의 심각성 이야기 나누기	교육용 PPT, 동영상
전개(60분)	·강의 : PPT자료와 동영상을 통해 영유아의 연령별, 장소별 안전사고 유형(중독, 추락, 질식, 화상 및 화재, 충돌, 놀이) 및 사례를 살펴보고 안전수칙을 알아본다. ·활동 : PPT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통해 장소별 위험요소를 찾고 가정안전꾸러미에 들어있는 안전용품과 자녀안전수첩 활용법에 대해 실습한다.	교육용 PPT, 동영상, 가정안전꾸러미, 자녀안전수첩
마무리(15분)	·요약 정리 ·가정안전꾸러미 배포	가정안전꾸러미 배포
2차시 : 응급처치		
교육목표	·영유아 응급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영유아 응급처치법을 익히고 응급상황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자료
도입(15분)	·교육내용 안내 ·응급처치의 중요성 이야기 나누기	교육용 PPT
전개(60분)	·강의 : PPT자료와 동영상을 통해 영유아 응급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질식, 화상, 중독, 추락, 기타)을 익힌다. ·활동 : 실습마네킹을 통해 영유아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처치법을 익힌다. : 신고실습을 통해 119에 신고하는 요령을 익힌다.	교육용 PPT, 동영상, 실습마네킹
마무리(15분)	·요약 정리	

III.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 적용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양천구에 소재한 38개 어린이집에 만1세부터 만6세의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9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사전에 1,100명의 부모가 참여하였으나 사후검사에 963명이 참여하여 963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 2> 연구대상의 특성

구분	N(%)		N(%)
부모연령	29세 이하	138(14.3)	963(100)
	30 - 39세	741(76.9)	
	40 - 49세	82(8.5)	
	50세 이상	2(0.2)	
주거형태	아파트	647(67.2)	963(100)
	연립주택/빌라	195(20.2)	
	개인주택	98(10.2)	
	상가주택	13(1.3)	
	기타	10(1.1)	
자녀의 안전사고의 유무	없음	426(44.2)	963(100)
	있음	537(55.8)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문헌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제작한 측정도구로 가정안전지식 척도, 가정안전실천 척도, 프로그램 만족도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정안전지식 척도

가정안전지식 척도는 영유아 안전사고에 관한 선행연구(강성희, 2004; 임지선, 2002; 장영희 외, 2003; King, et al., 2001)와 Fickling(1993)이 제시한 <Awareness of Risks in the Child's Home, ARCH> 척도, 통계청의 사망통계연보(2001~2009), 한국소비자원의 가정 내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2004, 2005, 2006)의 결과를 참조하여 (사)한국생활안전연합이(2007)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안전지식 수준 척도는 정·오답형 10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정답일 경우에는 1점, 오답일 경우에는 0점을 주었고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지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안전지식 척도의 문항구성은 선행연구들에서 가정 내에서 영유아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인 추락, 화상, 익사, 중독, 질식에 대한 안전지식을 묻는 10문항(예: 영유아의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의 크기)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를 이용하여 2년에 걸쳐 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검사 후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수정된 척도는 안전전문가 5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부모 100명으로부터 문항 이해정도를 평가한 결과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안전지식 수준 최종 척도는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추락, 화상, 익사, 중독, 질식에 대한 지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1'로 오답은 '0'으로 처리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안전지식 척도는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을 실시 직후의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종료 2주 후 사후검사 모두에 적용하였다. 신뢰도 Cronbach α 는 0.76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안전실천 척도

가정안전실천 척도는 선행연구(강성희, 2004; 임지선, 2002; 장영희 외, 2003; Hendrick & Reichert, 1996)의 결과를 참조하여 (사)한국생활안전연합(2007)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정안전지식 수준 척도를 구성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가정안전실천 척도는 선행연구들에서 가정 내 시설물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실천, 가정 내 물품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실천, 응급처치에 대한 안전실천으로 보고 있어 가정 내 시설물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실천 16문항(예: 창문 근처에 아이가 던지고 올라갈만한 가구나 물건을 치워 놓는다)과 가정 내 물품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실천 8문항(예: 약물, 세제는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응급처치에 대한 안전실천 2문항(예: 가정 내 응급처치용 구급용품을 구비하고 있다)으로 구성하였다. 가정안전실천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에 1점, '아니다'에 0점을 주었다. 가정안전실천에 대한 점수는 최하 0점에서 최고 2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실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가정안전실천 척도는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을 실시 직후의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종료 2주 후 사후검사 모두에 적용하였다. 신뢰도 Cronbach α 는 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만족도 질문지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교육에 참여한 부모 963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질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만족도 질문지는 총 10문항으로 가정안

전꾸러미의 안전용품 사용 여부(5문항: 안전용품 사용 여부, 사용빈도, 사용용품, 환경 조성의 도움정도, 안전용품 배포의 필요성),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의 도움정도(2문항: 환경조성의 도움정도, 행동의 변화정도),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1문항),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1문항),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사전검사,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사후검사 순으로 이루어졌다.

1) 사전검사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의 취지와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2)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은 중재집단의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시 양천구 소재 어린이집 38개 기관에 각 3시간씩 실시되었다.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된 후 가정안전꾸러미를 배포하였다.

3) 사후검사와 만족도 측정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된 2주일 후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아 부모들에게 사전검사와 동일한 도구와 만족도 설문지를 배포하여 사후검사와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 안전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안전지식과 안전실천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례수가 30사례 이상이면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어 부모 안전교육의 실시에 따른 안전지식과 안전실천의 차이를 보기 위해 안전지식의 정답을 1, 오답을 0으로, 안전실천에서 '그렇다'를 1, '아니다'를 0으로 변환하여 연속변수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t검증을 실

시하였다.

IV.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 적용 효과

1. 가정안전지식의 변화

가정안전지식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3>). 가정안전지식총점의 평균에서 사전 점수가 4.59점, 사후점수가 6.57점으로 나타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에 비해 1.98점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6.39, p<.001$). 이는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을 마친 후 어머니의 안전지식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각 항목별로는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온도($t=4.01, p<.001$),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난감 크기($t=-5.10, p<.001$), 장난감 구입 시 고려사항($t=-15.88, p<.001$), 추락사고 예방법($t=-14.43, p<.001$), 익사사고 예방법($t=-17.16, p<.001$), 장난감 연령표시($t=-20.79, p<.001$), 화상사고 예방법($t=-17.89, p<.001$), 사고다발 장소($t=-4.6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가정안전지식의 사전, 사후 차이 비교

안전지식	N	사전점수		사후점수		t
		M	SD	M	SD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온도	963	0.48	0.5	0.57	0.5	4.01***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난감 크기	963	0.5	0.5	0.61	0.49	-5.10***
장난감 구입 시 고려사항	963	0.21	0.4	0.52	0.5	-15.88***
추락사고 예방법	963	0.42	0.49	0.71	0.45	-14.43***
난간의 간격	963	0.13	0.34	0.14	0.35	-0.52
익사사고 예방법	963	0.34	0.47	0.68	0.47	-17.16***
장난감 연령표시	963	0.24	0.43	0.65	0.48	-20.79***
화상사고 예방법	963	0.52	0.5	0.85	0.36	-17.89***
타박상 응급처치법	963	0.82	0.39	0.81	0.4	0.66
사고다발 장소	963	0.85	0.36	0.92	0.28	-4.68***
안전지식총점	963	4.59	1.53	6.57	1.79	-26.39***

※ *** $p<.001$

2. 가정안전실천의 변화

가정안전실천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4>). 사전점수가 15.04점, 사후점수가 17.36점으로 나타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에 비해 2.32점 높게 나타났다($t=-9.79, p<.001$). 이는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을 마친 후 안전행동 실천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각 항목별로는 창문에 안전장치나 난간설치($t=-20.61, p<.001$), 난로나 선풍기에 안전망 두르고 사용($t=-13.70, p<.001$), 아이가 혼자 욕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잠금($t=-4.65, p<.001$), 욕실(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스티커 처리($t=-11.49, p<.001$), 욕조나 대야에 물을 채우지 않음($t=-16.44, p<.001$), 뜨거운 음식, 전기 열기구, 식기는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비치($t=-5.66, p<.001$), 싱크대, 찬장, 냉장고에 잠금장치 붙임($t=-11.86, p<.001$), 가스레인지 스위치에 잠금장치 설치($t=-5.28, p<.001$), 식칼, 가위, 날카로운 물건, 무거운 병을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t=-14.62, p<.001$), 계단, 난간의 높이, 간격 일정함($t=-5.09, p<.001$), 현관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우산꽂이 설치($t=-4.54, p<.001$), 바닥에 걸려 넘어 질만한 물건 제거($t=-10.96, p<.001$), 모서리가 예리한 가구에 모서리 보호덮개 설치($t=-12.59, p<.001$), 창문/베란다 앞에 딛고 오를 가구나 물건 치움($t=-9.40, p<.001$), 집안 문에 손끼임 방지 장치 설치($t=-16.44, p<.001$), 선반, 책상, 벽에 떨어질만한 물건 제거($t=-12.59, p<.001$), 견과류 등 작은 식품과 물건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t=-2.52, p<.05$), 전기콘센트에 안전덮개나 가구로 가림($t=-13.70, p<.001$), 약품, 세제, 담배, 화장품, 알코올 등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t=-9.58, p<.001$), 응급의료함 구비($t=-2.33, p<.05$), 전화기 옆에 응급 비상연락처 비치($t=-10.28,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배포한 안전용품을 사용한 후 안전용품 사용과 관련된 항목에서 안전실천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용품 배포가 안전한 가정환경을 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 가정안전실천의 사전, 사후 차이 비교

가정안전환경	N	사전점수		사후점수		t
		M	SD	M	SD	
창문에 안전장치나 난간 설치	963	.32	.47	.73	.45	-20.61***
커튼 블라인드 줄을 아이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움	963	.58	.49	.62	.49	-1.80
베란다에 아이가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잠금	963	.39	.49	.42	.49	-1.33
난로나 선풍기에 안전망 두르고 사용	963	.46	.50	.77	.54	-13.70***
아이가 혼자 욕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잠금	963	.23	.77	.41	1.02	-4.65***
욕실(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스티커 처리	963	.26	.74	.65	.82	-11.49***

※ * $p<.05$, *** $p<.001$

<표 4> 가정안전실천의 사전, 사후 차이 비교(계속)

가정안전환경	N	사전점수		사후점수		t
		M	SD	M	SD	
욕조나 대야에 물을 채우지 않음	963	.58	.49	.88	.33	-16.44***
수도꼭지는 항상 냉수 쪽으로 돌려 놓음	963	.81	.51	.85	.36	-1.75
뜨거운 음식, 전기열기구, 식기는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비치	963	.80	.40	.90	.45	-5.66***
싱크대, 찬장, 냉장고에 잠금장치 붙임	963	.27	.50	.51	.44	-11.86***
가스레인지 스위치에 잠금장치 설치	963	.28	.93	.45	.50	-5.28***
식칼, 가위, 날카로운 물건, 무거운 병이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963	.54	.50	.82	.39	-14.62***
계단, 난간의 높이, 간격 일정함	963	.80	.40	.88	.33	-5.09***
현관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우산꽂이 설치	963	.43	1.28	.63	.50	-4.54***
바닥에 걸려 넘어질만한 물건 제거	963	.56	.77	.91	.72	-10.96***
파손된 장난감,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963	.88	.33	.89	.31	-1.08
모서리가 예리한 가구에 모서리 보호대 붙임	963	.53	.50	.88	.74	-12.59***
창문/베란다 앞에 딛고 오를 가구나 물건 치움	963	.59	.77	.82	.38	-9.40***
집안 문에 손끼임 방지 장치 설치	963	.58	.49	.88	.33	-16.44***
선반, 책상, 벽에 떨어질만한 물건 제거	963	.53	.50	.88	.74	-12.59***
견과류 등 작은 식품과 물건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963	.76	.43	.81	.52	-2.52*
전기 콘센트는 안전덮개나 가구로 가림	963	.46	.50	.77	.54	-13.70***
약품, 세제, 담배, 화장품, 알코올 등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963	.59	.49	.78	.42	-9.58***
비닐봉지, 랩등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963	.69	.75	.71	.45	-.61
응급의료함 구비	963	.74	.95	.81	.39	-2.33*
전화기 옆에 응급 비상연락처 비치	963	.29	.50	.50	.45	-10.28***
가정환경 총점	963	15.04	4.99	17.36	5.44	-9.79***

※ * p<.05, ***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38개 교육 기관에 실시한 후 어머니의 가정안전지식, 가정안전실천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라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 실시 전·후 안전지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안전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어머니들의 가정안전에 대한 지식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지선(2002)과 장영희 외(2003), 강성희(2004), 김혜금(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어머니들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 이에 대한 부모안전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들의 안전지식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안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안전지식이 증가한 연구들을(강성희, 2004; 김혜금, 2007)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안전교육 경험이 안전지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들이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안전지식은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Tower *et. al.*, 2001).

둘째,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 실시 전·후 안전실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안전실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가정안전실천 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이는 선행연구(강성희, 2004; 권기창 외, 2006; 김혜금, 2007; 장영희 외, 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부모들이 가정에서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안전실천을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가정안전실천 정도가 현저히 향상되었으며 특히 제공된 안전용품 사용을 통한 안전환경구성 실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로 어머니들에게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2%가 안전용품이 가정 내 안전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안전용품이 안전한 환경구성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도 대다수의 영유아 부모들은 안전용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었으나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더 많은 수의 안전용품을 사용하여 사용률이 향상되었다. 이는 Clamp와 Kendrick(1988: 1576-1579)이 만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컨설팅 및 안전용품 사용을 장려한 후 안전용품 사용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 부모들에게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연구결과에서 시사하듯이(Purscher, *et. al.*, 1998: 236-237; Thompson, *et. al.*, 1998: 138-140)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전달과 더불어 안전용품에 제공될 때 실제로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들에게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의 도움정도를 조사한 결과, 93.5%가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이 가정 내 안전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부모안전교육을 통해 84.5%가 행동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은 어머니의 가정안전지식과 가정안전실천에 변화를 주며, 안전실천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전달 위주의 안전교육보다는 안전용품 제공과 같이 적극적인 형태의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며 부모들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안전실천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자기보고에 의한 것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와 더불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천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부모안전교육의 효과성에 있어서 2주 후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안전실천의 효과성이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실시 후 일정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부모안전교육 효과의 지속성을 살펴보는 추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추후 검사에는 안전지식, 안전실천과 더불어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률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추후에는 다양한 지역의 부모,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가정 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은 지식기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인 반면,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지식 전달과 더불어 안전한 환경구성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을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부모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성희. 2004. 가정내 영유아안전사고분석을 통한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기창 · 이종영 · 광영호 · 윤선화. 2006. 아동 안전사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체계 개발. 보건복지부. (사)한국생활안전연합. 18-48.
- 김혜균. 2007. 영유아 부모를 위한 가정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5(2): 33-50.
- 박순우. 2003. 우리나라 어린이 사고 현황.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 연세집. 2003(2): 52-66.
- 박순우 · 허윤정 · 이상원 · 박정한. 2004. 대구, 경북지역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 발생 현황. 예방의학회지. 37(3): 274-281.
- 박혜숙 · 박남수 · 어은경. 2009. 아동청소년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지표 개발. 보건복지부 · 이화여자대학교.
- 보건복지부. 2011. 5. 26. 어린이 안전사고의 63%가 가정 내에서 발생!(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윤선화 · 정윤경. 2007.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조사. 서울: 한국생활안전연합.
- 윤선화 · 정윤경 · 이경신. 2010.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교육프로그램. 서울: 한국생활안전연합.
- 이기숙 · 장영희 · 정미라 · 윤선화. 2011.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서울: 양서원.

- 이원경 · 박건희 · 은상준 · 김윤 · 이진석 · 송경준 · 문상준 · 김용익. 2009. 학령전기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생활안전영역의 비도의도적 손상. 대한응급의학회지. 20(3): 288-296.
- 이재연. 1996. 아동발달. 서울: 문음사.
- 임지선. 200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안전지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희 · 윤선화 · 정윤경 · 이해경 · 윤서연. 2003. 부모 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사)한국생활안전연합.
- 질병관리본부. 2009. 2008 표본병원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 질병관리본부.
- 한국소비자원. 2010.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2011. 어린이 안전사고 위해정보 분석. 한국소비자원.
- 한국생활안전연합. 2007.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부모안전교육 효과 조사. 한국생활안전연합.
- 통계청. 2009.5. 6.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OECD국가 비교(보도자료). 통계청.
- 통계청. 2011. 사망원인 통계연보. 통계청.
- Bablouzian, L., E. S. Freedman, K. E. Wolski, and L. E. Fried. 1997. Evaluation of a Community Based Childhood Injury Prevention Program. *Injury Prevention*. 3(1): 14 - 16.
- Clamp, M. and D. Kendrick. 1998.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General Practitioner Safety Advice for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5 years. *British Medicine Journal*. 316: 1576 - 1579.
- Fickling, J. A. W. 1993. *The Construction and Testing of a Measure of parental Knowledge of Home-based Injury Risks to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Maryland, USA.
- Halperin, S. F., J. L. Bass, and K. A. Mehta. 1983. Knowledge of Accident Prevention among Parents of Young Children in Nine Massachusetts Towns. *Public Health Report*. 98: 548 - 552.
- Hendriks, C. M. and A. Reichert, 1996. Parents Self Reported Behaviors Related to Health and Safety of Very Young Children. *Journal of School Health* 66: 247-251.
- Hall-Long, B. A., K. Schell, and V. Corrigan. 2001. Youth Safety Education and Injury Prevention Program. *Pediatric Nursing*. 27(2): 141-148.
- King, L. M. Thomas, K. Gatenby, A. Georgiou, and M. Hua. 1999. "First Aid for Scalds" Campaign: Reaching Sydney's Chinese, Vietnamese, and Arabic Speaking Communities. *Injury Prevention*. 5: 104 - 108.
- Kendrick, D., P. Marsh, K. Fielding, and P. Miller. 1999. Preventing Injuries in Children: Cluster

-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n Primary Care. *British Medicine Journal*. 318: 980 - 983.
- Liller, K., J. Craig, and N. Crane. 1998. Evaluation of a Poison Prevention Lesson for Kindergarten and Third Grade Students. *Injury Prevention*. 4: 218-221.
- Mackay, A. M. and K. J. Rothman. 1982.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Burn Injuries Following Protect Burn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2: 248-252.
- Mallonee, S., G. R. Istre, M. Rosenberg, M. Reddish-Douglas, F. Jordan, P. Silverstein, and W. Tunell. 1996. Surveillance and Prevention of Residential-fire Injuri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5: 27 - 31.
- Peterson, L., S. Gable, and L. Saldana. 1996. Accelerating Children's Risk for Injury: Mothers' Decisions Regarding Common Safety Rul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9: 317-331.
- Purtscher, K. and J. Mayr. 1998. Austrian Committee for Injury Prevention in Childhood. *Injury Prevention*. 4: 236-237.
- Routh, D. K. 1997. Injury Control Research in Pediatric Psychology: A Commentary and A Proposal.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2: 495-498.
- Robertson, C. 1998. *Safety, Nutrition, and Health in Early Education*. Delmar Publishers.
- Shults, R., J. Sacks, L. Briske, P. H. Dickey, M. R. Kinde, S. Mallonee, and M. R. Douglas. 1998. Evaluation of Three Smoke Detector Promotion Program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on Medicine*. 4: 308-312.
- Towner, E. and H. Ward. 1998. Prevention of Injuries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 Way Ahead for the UK. *Injury Prevention*. 4: 10-16.
- Thompson, R., P. Edwards, and S. Jarvis. 1998. Childhood Accidents: Is It Time to Prescribe Safety Equipment? *Community Practitioner*. 71: 138-140.
- Towner E., T. Dowswell, and T. Jarvis. 2001. A Systemic Review of What Works in Preventing Childhood Unintentional Injuries: Part 1, 2. *Injury Prevention*. 7(3): 249-253.

尹宣化: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문학박사(아동복지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로 재직 중이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손상정책포럼 운영위원, 질병관리본부 국가손상통합감시체계 운영사업단 위원, 소방방재청 규제심사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저서로는 “영유아를 위한 안전관리”,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교육프로그램”, “실외놀이터와 어린이안전” 등이 있으며 “유아용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소방방재청)”, “초등학생용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소방방재청)” 등의 연구물이 있으며 관심분야는 손상예방, 안전교육 등이다(yshsafety@hanmail.net).

丁允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아동청소년복지 전공)을 수료하였고 현재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 기획

실장으로 재직 중이다(jyk98106@hanmail.net).

투 고 일: 2012년 05월 11일

수 정 일: 2012년 05월 27일

게재확정일: 2012년 06월 11일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with Infant and Young Children

Sun Hwa Yoon, Yun Kyoung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a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with infant and young children and to analyze its effectiveness in connection with the means of preventing injuries at home. The study participants were 963 mothers whose infant and young children attend at 38 child care centers in Yangchun-gu.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t-test was run by SPSS 17.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afety knowledge of mothers with infant and young children was noticeably increased after the safety education program. Second, the safety practice of mothers with infant and young children was noticeably increased after the safety education program, and particular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afety environment in relation to the usage of safety devices.

Key word: injury at home, safety education for parents with Infant and young children, safety knowledge, safety practice